



사단법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

바로서는 학부모
우뚝서는 아이들

참교육 소식

2014

7월



2014년 7월 통합 263호

발행인 : 편국자 / 주소 : 부산진구 중앙대로 918-1 (양정1동 352-2, 3층) / TEL | 051) 556-1799 / FAX | 051) 556-1790 / hakburno1@empas.com

참교육 소식

창 사단법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

7월 CONTENTS

표지이야기

표지 사진은 6월28일

“학부모 원탁토크쇼-김석준 교육감 당선자와 톡톡톡”에
회의진행자로 참여한 참학의 회원입니다.

- 여는 글 | 아이를 키우면서 p3
- 기획글 | 김석준 교육감 당선인과 톡톡톡 p4
- 회원탐방 | 최진경 회원을 만나다 p8
- 어린이글 | 김주연 p12
- 청소년글 | 천예진 p13
- 그림책 소모임 “토닥토닥” | 안병남 p15
- 김혜례의 詩 이야기 | 녹차를 들며 p18
- 최은화의 센터이야기 p20
- N의 교단일기 | 노영민 p22
- 신광호의 영화읽기 | 동과 서, 살람 봄베이 p24
- 성명서 p29
- 논평 p30
- 학부모 알림란 p31
- 이달의 지역 언론 속의 교육기사 p32
- 활동사진 p36
- 지부일정 p38
- 6월 회비 보고 p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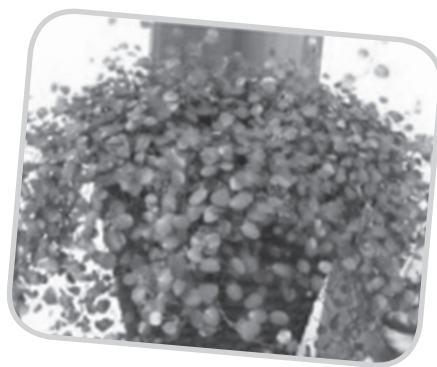
트리안을 키우면서



지난해 올망졸망 예쁜 초록잎에 반해 구입한 트리안.
물과 햇빛을 좋아한다는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막무가내로 키웠더니 두 달도 못 가
그 초록빛이 누렇게 말라 떨어졌다.

마음 내킬 때는 물을 듬뿍 주다가
머칠씩 개으름을 피우기를 반복하니
어느새 화초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같은 초록이지만 햇빛과 물을 좋아하는 것,
또 물을 많이 먹으면 뿌리부터 썩는 것,
유난히 햇빛을 싫어하는 것..
제각각 싫고 좋은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수많은 화분들이 사라져버리고 나서였다.



트리안.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충분한 습도를 유
지시켜야 한다.

“추억”이라는 꽃말의 트리안,
이번에는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다짐해본다

나는 내 아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당한 빛과 물, 바람을 주고 있는가??
키우는 사람에 따라 초록잎의 크기와 빛깔이
달라지는 화초를 보고 반성해본다.

관심과 적당한 사랑!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 당선인과 톡톡톡

정리 : 최 진 경

지난 6월 28일 ‘김석준 교육감당선인과 톡톡톡’이라는 원탁토크쇼가 진행되었다.

학부모 및 일반 시민 300여명이 참석, ‘부산교육,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큰 주제로 ‘교육정책 제안’ ‘학교생활개선’ ‘학부모참여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참학에서는 회원 몇 분이 원탁진행자로 참여하여 부산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달 기획글에는 참석한 회원의 글을 정리하며 참학에서 앞으로 해야할 일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1.세 가지 주제에 관한 의견

교 육 정 책 제 안	<p>▶ 유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육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원법 개정 · 병설 유치원 확충
	<p>▶ 초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제 없는 학교 · 초등학교 중간 및 기말고사 유무 통일 · 방과 후 돌봄 교실 :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원활한 연계 및 실질 시간과 예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 · 현장교육의 중요성 · 학교 도서관 전문 사서 배치 · 제도적이고 통일된 매뉴얼의 방과 후 활동 필요 · 방과 후 학교 : 형식적인 방과후 수업 지양, 강사의 책임감 요구, 강사관리 필요, 방학기간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대학생 멘토링수업 등)
	<p>▶ 중, 고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제의 병폐 : 중학생을 위한 입시규정 불안 · 방과 후 학교의 선택폭 확대 및 불필요한 예산집행 감시 필요 · 일반중, 일반고의 학력 문제 해결 방안이 절실

교육 정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 잘 하는 아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도 대책 필요 · 교육주체인 학생, 특히 고등학생에게 자율권을! · 특성화고교 전학년이 실습 위주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 일반계고 야간자율학습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 대입 진학지도 실질적 계획의 수립 요구 · 진학지도 정보의 신속한 전달 · 단위학교 홈페이지 내 교육정책변화의 정보 탑재 요망 · 자사고 폐지, 좀 더 생각을 해주었으면 한다.
	<p>▶ 교육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학교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절실 · 혁신학교를 통한 인성강화 교육 필요 · 경쟁 없는 교육, 선익의 경쟁으로 생존하자! ·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 교육의 목적, 교사의 자긍심 고취 · 경쟁이 아닌 협동이 목표가 되는 교육 · 자연친화적인 교육 · 실질적인 경제교육이 필요! · 아토피 전문학교 개교 희망 · 고교 사교육비 절감, 동서간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 요구 · 교사의 고유업무인 교재연구 및 학생상담을 위한 교사 잡무 경감 · 국제고 정원 확대 · 학교 비정규직 해결(학생을 위한 상담의 지속성 보장) · 상담사, 급식, 교무 행정사 확대 · 원어민 교사 활성화 · 학부모 지원 전문가 파견 요망 : 혁신학교 교육,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교육을 담당. <p>시교육청에 기구 설치와 고용으로 각 지역교육청으로 배치하는 방법.</p>
학교 생활 개선	<p>▶ 급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급식과 매점 존폐, 과일 제공이 좀 더 많은 식단 필요
	<p>▶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관리 감독 철저 및 환경 개선 : 창문이 없는 어린이집, 초과보육으로 과밀, 일조권 확보가 없는 어린이집 건물, 좁은 놀이터 등 · 컴퓨터, 화장실, 계단, 미끄럼방지턱 등 교육청지원으로 시설 교체 필요 · 탁구대, 음악 줄넘기, 종이 접기 등 다양한 활동 지원위한 놀이 공간 필요 · 강당 없는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 · 고무 냄새나는 우레탄 운동장에 대한 안정성 문제
	<p>▶ 등하교길 안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 너무 좁다거나 계단이 많은 곳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교문 앞 학원차량, 학부모차량으로 위험, 교문 앞 일정거리 차량통제 필요함

학 교 생 활 개 선	<p>▶ 교육과정 내 생활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평가 개선 · 일과조정 등으로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필요. · 공동체의식 가질 수 있는 놀이 문화 · 아열대화되어 가는 기후를 감안한 운동장과 강당을 겸한 체육수업 · 텃밭 가꾸기로 마을 행사도 함께 · 성교육 필요 · 주 1회나 월 2회로 예절교육 의무화 · 다양한 스포츠 교육 · 졸업기 인증제 폐지 ·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청소년단체 등과 연계한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한 학교 만들기: 학부모회비로 학교행사진행 사례 근절 · 대안학교 지원 요구(교육비, 급식비, 인건비 등)
학 부 모 참 여 방 법	<p>▶ 학교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교육 등의 저녁시간대 시행(맞벌이부모를 위한 배려) · 체육대회 등 학교행사의 주말시행
	<p>▶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 수행에 대한 교육 필요 · 학교 교육에 뜻이 있는 학부모 모임 · 학교 교육에 뜻이 있는 선생님 모임 · 학부모와 운영위원회가 같은 조직운영을 이끌어 가는 법 · 학교사업에만 동원되고 있는 조직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의 뜻을 반영하는 단체로 운영 희망 ·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학교 운영이 필요 · 학부모의 추천에 의한 운영위원 선출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인 '학부모 좌담회' 필요 · 교장선생님과 학기별 열린 대화의 장 필요 · 교사에 대한 요청사항 등이 전달 가능한 제도나 장소가 필요 · 학부모가 교육과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요구 · 올바른 학교참여방법에 대한 교육 필요 · 아버지의 참여: 단위학교 내 부자(녀)캠프를 활성화 · 중학교 동창회 활성화 · 학부모 동아리 지원(필수예산편성) · 도서관 확대 · 교장 직선제 · 학생들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고 실현 시킬 수 있는 제도와 분위기가 조성 · 학부모회 임원이나 운영위원이 아닌 일반 학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제도 마련

2. 회원 및 참석자의 종합의견

운영위원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회원은 적극적인 학부모들의 참여로 의견작성에 거침이 없었다고 현장분위기를 전하며 변화를 기대하는 모습은 물론이지만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물론 학교 회장단에 대한 불신이 공존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공동체 의식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교육감과의 문턱 없는 자유로운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고도 전했다.

교사인 한 회원은 학부모들과 교사간의 의견 차가 많음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한다. 그러나 자녀(학습자)를 중심으로 둔다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으며 학생, 교사, 학부모의 접점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학교 공개 수업에 대한 교사의 반대입장은 별도의 수업 준비를 해야함으로써 시간 낭비가 되는 면과 평소 수업태도는 드러나지 않기에 학부모의 그릇된 판단이 생길 수 있으며, 학부모입장에서는 자녀의 수업태도, 수업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현하게 된다고 예를 들었다. 그 합의점으로 공개수업 준비할 시간에 자녀의 학교생활과 수업태도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 정례화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관을 한 신라대 사회복지과 김모군은 부산의 새로운 교육감이 무엇보다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려는 마음가짐이 느껴져서 좋았다고 했으며, 더욱 친밀하고 편안한 교감을 위해 교육감실에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약속어음을 경품으로 내걸은 진행에 감탄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있는 자리가 더 많이 더 쉽게 열렸으면 하는 소망을 전했다.

3. 참학이 해야 할 일

세월호 참사 이후 “가만히 있으라”와 교육감 선출 이후 “학부모가 가만 있으면 안된다”는 변화, 그리고 아이를 중심에 두고 “어떤 교육을 해야할까”로 고민하는 자리여서 의미 있었다.

학부모가 내 아이만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할까, 입시서열이라는 경쟁 앞에 혁신학교는 어디까지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남겨두고 참학 회원들과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싶다.

학교에 말 못하는 고민을 참학에 털어놓는 학부모님들..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해결하고 때로는 아이가 다치지 않게 평화롭게 싸워야하는 호밀밭의 파수꾼 같은 역할-참학이 가야할 길을 작가에게 묻다.

“난 어떤 절벽 끝에 서서, 그 아이들이 절벽 끝인 줄 모르고 달리는 것을 내가 붙잡아 준단말야.
난 그저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자 하는 것뿐이지.”

『호밀밭의 파수꾼』 - J.D. 샬린저



● ●

최진경 회원을 만나다



아이를 키우면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보통 아이의 인성, 진로, 학교폭력, 교사, 학교와의 관계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이다.(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부모 상담실 자료 발췌)
그럴 때 전문가의 상담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학 부산지부에도 학부모들을 상담하고 피드백 해주는 회원이 있다.
참학 상담실장으로 지난 5월부터 주 2회씩 참학 사무실에서 상담전화를 받으며 세상과 아이들의 소통을 돕고 있는 최진경 회원을 소개한다.

Q : 참학에는 언제 가입하셨나요?

A : 2005년에 가입했어요.

당시 저는 딸아이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 활동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저를 보호해 주고 도움을 줄만한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를 찾던 중 참학을 가입하게 되었어요.

Q : 가입하신지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참학이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나요?

A : 그럼요. 제 아이가 6학년 때 학교 근처에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당할 일이 생겼어요.

그때 저는 아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당시 채승영 지부장님께 많은 조언을 받았어요.

지부장님이 보내주신 '학습권 침해 포럼' 자료를 바탕으로 '비상 대책 위원회'를 조직하고 제가 장을 맡았어요.

이후 관련법이 바뀌어 교육청에서 중재가 가능하게 돼 문제는 잘 해결 되었습니다.

Q : 교육과 상담 분야에 굉장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으신데....

A : 제가 교육 관련 공부를 하게 된 것은 결혼하고 4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면서 부터입니다. 임신까지가 힘들었기 때문에 낳을 아이가 정말 귀하게 생각되니 저절로 부모로서 준비하고 공부하게 되더군요.

임신 기간 동안에는 육아 잡지, 육아서들, 아이를 키우면서는 육아 강좌를 듣고 그림책을 읽으며 끊임없이 아이와 소통하려고 애썼어요.

저는 지금도 그림책을 좋아하는데 책을 매개로 아이를 칭찬하고 위로하며 갈등도 해결해 온 과정이 있어서일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바람직한 부모 교육', '감정 코칭 교육'등의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를 통해 좋은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커가는 아이의 연령에 맞는 대화법을 배우죠.

Q : 평소 주위 엄마들에게 진학 정보도 제공하고 관련 상담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A : 아이의 학습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엄마가 현실적인 교육, 진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아요.

저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육아 사이트, 북사이트 등 온라인 카페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찾고 활용했었어요.

그런 경험을 살려 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제 집처럼 드나 들었어요.

그러면서 부산 교육청 온라인 모니터, 교육부 모니터 요원으로 작년까지 활동하였구요...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정보들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진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교육 정보에 목마르신 학부모님께 교육 관련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어요.

Q : 이렇게 아무진 엄마를 둔 행복한(?) 자녀분 얘기 좀 들려주세요.

A : 딸아이는 현재 고2이고 과학중점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교육을 하는 대신 좋아하는 책을 실컷 읽고 무엇이든 가능한 직접 보고 체험하게 도와주면서 키웠어요.

아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하고 싶은 일은 가능한 다 해 보도록 격려했죠.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화와 공감으로 형성된 아이와의 끈끈한 유대 관계가 순간순간을 현명하게 넘기는 힘이 되어 주었어요.

부모와 떨어져 대입을 준비하는 지금도 아이에게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자신이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꽃꽂이하게 잘 이겨낼 거라고 믿어요.



Q : 최근 적극적으로 참학 활동을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A : 그동안 저는 온라인이나 아이의 학교 활동을 주로 했었는데요... 세월호 사고가 생긴 이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세월호 때 희생당한 아이들이 제 딸과 같은 학년이라 그랬는지 이번 일은 저에게 너무 힘든 아픔이었어요.

혼자서 마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지인과 함께 풋볼을 하기 위해 부산역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참학 분들이 있더군요.

암담한 세상에 아이들을 버려두는 것 같아 힘들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적극적으로 참학 일에 뛰어들었죠.

Q : 대부분 시민 단체 일이 다 그렇지만 참학 일이 녹록지 않으실 텐데...

A : 우리 단체의 존재 이유는 아이들입니다. 아이가 모든 활동의 중심이며 무엇이 아이를 위한 일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지요.

그런 면에서 지금 지부장님과과는 코드가 정말 잘 맞아요. 그래서 좀 덜 힘든 것일지도...(웃음)

지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중심에는 항상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부장님은 어떤 일이든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시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다들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참학 회원은 없을 겁니다.

저는 현재 참학에서 일주일에 두 번 상담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일이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최선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Q : 참학에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A : 참학에 유아와 초등생들을 둔 학부모들이 많아져서 참학 사무실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늘 들렸으면 좋겠어요.

참학이 회원들과 아이들의 사랑방, 놀이방 역할을 해서 교육 정책과 고민을 편하게 나누는 공간이 되었음 합니다.

특히 책 읽어 주는 코너를 만들어 우리 회원들이 품앗이 교육을 담당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긍정성을 갖추며 밝게 자랐으면 해요.

저는 아이들이 지나친 경쟁으로 생긴 스트레스를 이기는 내공을 쌓아가길 바라고 독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토박이임에도 사투리를 느낄 수 없는 말씨, 낮고 차분하지만 핵심을 분명히 전달하는 목소리.

최진경 회원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인터뷰를 하는 것인지 강의를 들으러 온 것인지...

지부장님이 오셔서 점심을 제안하지 않으셨다면 참학 최초 인터뷰를 빙자한 육아 강의(?)는 도끼 자루가 썩을 때
까지 계속 되었을 것이다.(ㅋㅋㅋ)

최진경 회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가 엄마로 산 지난 이십 여 년 동안 자신과 주위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고 노력했는지가 느껴져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순간이 있었다.

이번 인터뷰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풍부한 연륜, 뛰어난 언변... 참학 상담 실장의 아우라를 온 몸으로 느끼
게 해 준 시간이었다.

최진경 회원의 뛰어난 능력이 아이들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에게 한여름 청량한 냉수 역할을 하게 되기를....
아울러 그녀의 말대로 참학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날이 얼른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글 : 신지원)



어린이 글

시험

김 주 연 (사상초 5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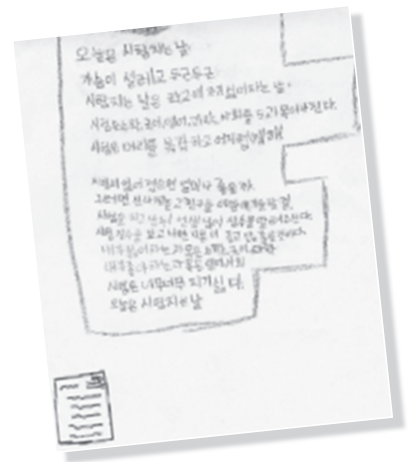
오늘은 시험치는 날,
가슴이 설레고 두근두근
시험치는 날은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날
시험은 수학, 국어, 영어, 과학, 사회를 5과목이나 한다.
시험은 머리를 복잡하고 어지럽게 해.

시험이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신나게 놀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걸.
시험을 치고 난 뒤 선생님이 점수를 알려주신다.
시험점수를 보고 나면 기분이 좋고 안 좋을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과목은 수학, 국어, 과학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 사회

시험은 너무너무 치기 싫다

오늘은 시험치는 날



김주연 어린이의 글은 김진아 회원님의 추천으로 받았습니다.

주연이를 비롯한 많은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혁신학교를 도입, 확산시켜야겠습니다. ^^

우.다.소.사.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우리 다함께 소중한 사람들)

천 예 진 (동향중 2학년)

나는 6월14일 8시부터 5시까지 자원봉사를 하였다.

처음에 버스에 탑승하였을 때는 부푼 가슴과 기대감을 안고 있었다.

차에 타서 약1시간쯤이 흘러 '선아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서는 각각의 방을 둘러보고 설명을 들었다.

낯설기도 하였지만 조금시간이 지나자 차츰 적응을 해 갔다.

그곳의 아이들, 어른분들도 우리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편하고 친근한 공간이었던 것 같다.

나는 고등학교 2학년, 18살의 언니인 이노사 언니와 짝을 하였는데 나보다 나이도 3살이나 많아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친하게 지내지 못하였는데 차안에서 같이 있다보니 편해지고 언니도 나를 편하게 대한 것 같다.

차에서 각각의 조, 유의점들을 들으면서 경주 동궁원으로 향했다.

먼저 숨바꼭질 온실로 향했는데 많은 꽃들과 식물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언니가 깊숙한 곳에 들어가 나오지 않아 당황하기도 했지만 조금 있다가 나와서 그림을 그리러갔다.

언니는 앵무새종이를 골랐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 언니는 나보다 더 꼼꼼하게 칠하는 모습을 보고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생각했고, 장애인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내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그 다음은 음악분수를 보고 큰 식물원에 들어갔다. 계속 손을 잡고 따라다니고 위험한 행동을 하면 제지하느라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언니의 즐거운 표정, 웃는 모습을 보니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다.

점심을 먹고는 버드파크에서 새, 물고기, 뱀 등을 보았는데 나도 흥미가 있었고 언니도 흥미로워했던 것 같다. 한 2시간 쯤 돌아보고 나서 사진을 찍고 다시 부산으로 향하는 버스에 탔다.

힘이 들어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잤던 것 같다.

선아의 집으로 가 장애아동들을 내려주고 우리는 다시 우암동으로 갔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내가 얻어가는 게 참 많은 것 같다.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도 배웠고, 협동심도 기를 수 있었다.

평소에 알고 지냈던 무뚝뚝하던 남자애들이 어린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 놀랐고, 다시 보게 되었다.
 나는 하루 체험을 하였지만, 몇 개월, 몇 년 꾸준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니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는 평등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회이다.
 그러니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좀 더 잘 보살펴주었으면 좋겠다.
 이번 봉사활동을 잊지 않고 커서도 계속 실천해야겠다.



천예진 학생의 체험담 잘 들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지면 죄책감 보다
 우정이 싹트겠지요. ^^

우다소사 자원봉사 체험은 부산시청 지원으로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가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6월,
 9월 두 번에 걸쳐 비장애 학생이 장애학생을 돌보며 함께 체험하도록 계획했고, 2010년부터 활동했습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하신 참학 회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봉사 점수 때문이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단체와 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학생 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이 서
 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우정을 나누는 것이고, 진정한 관계가 아닐까 하는 의견에 동의하며 방법을 모색하고 있
 습니다.

참여한 학생들과 행사를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신 참학 회원과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림책 소모임

“토닥토닥” 6월 소식

안병남



봄을 알리는 4월에 아이엄마들이 모여 책 교류회를 한다는 어렴풋한 소식을 듣고 찾아와 어느덧 몇 달의 모임을 갖게 되었다.

난 7세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고 일하는 엄마다.

엄마, 아빠 귀가 시간이 늦어 유치원을 다녀온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저녁시간을 보낸다.

만3살까지 품에서 놓지 않고 돌봤기에 일을 시작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 못지 않게 아이를 맡겨놓고 있는 현실에 안절부절하고 아이에게 미안했다.

그러던 시간이 4년쯤 접어들면서 차츰 자리잡고 있던중, 참학의 엄마들과 함께한 <토닥토닥> 모임은 나의 역할 중 하나인 엄마로 돌아올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익숙하게 읽어오던 그림책을 서로가 애장하는 (아니면 아이가 애장하는^^) 책을 번갈아 소개하며 구연동화하기도 하고, 육아서와 교육서를 넘나 들며 자신이 읽었던 또는 읽으며 실천하고자 애쓰는 책을 소개하는 시간은 유익하고 즐거웠다.

원하던 원치 않든 ‘부모가 아이에게 최초의 교사이다’는 말에 나는 동의한다.

가장 가까이 있고 많이 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 교사이지 않을까.

관리교사나 유치원 교사, 학교선생에게 모든 교육을 떠 넘긴 현실이 싫지만 어느덧 동화되고 방심하고 있음을 느낀다.

왜 우리 부모가 했듯이 어머니, 아버지, 이름 또박또박 쓰면서 따라 읽기 시키던 그 시절과는 달리, “엄마, 아빠는 자기 애 못가르쳐요, 습관도 안잡혀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학습지나 학원에서 시켜요”가 상식이 되어버렸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나는 교육계와 정부의 공공의 적이 된 사교육의 현장에 있다.

학원이 공교육 붕괴의 원흉이 되고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소비악이 되어 버린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교육의 핵심철학을 실현할 있을까라는 고민과 사색을 거듭한 결과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가르치냐는 본연의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정확한 교육계의 문제가 직시되리라고 생각했다.

내 아이에게 한글을 또박또박 가르치고, “공 4개를 강아지가 1개 가지면, 고양이는 몇 개?” “으음, 3개 가져” 라고 나에게 배운대로 이야기하듯 흥얼거리며 아이가 말하는 걸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비록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나는 우리 교육계가 자긍심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빈곤과 기아로 허덕이지 않고 미래의 성장 발판을 장착(裝着)한 나라로 성장한 것은 여러 세대의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지고 교육에 힘썼기 때문이라고 본다. 나의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그 교육을 받은 세대는 확실히 교육의 기쁨이 있었다.

배우면 똑똑해지는 느낌, 배우고 실력이 향상 될 수록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은 느낌, 나는 그런 느낌이 꽤 좋았고 그래서 지금도 공부하는 즐거운 일인 것 같다.

독서가 꿀잠에 빠지게 만드는 기가 막힌 도구(^^)가 될 때도 있지만, 이런 책을 남겨줘서 감동이 되어 가슴에 품게 되는 독서가 있듯이.

무자비한 폭력에 해당되는 억지 공부도 있지만 초롱초롱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알게 되는 기쁨, 배우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척 많아질 것 같은 희망의 기쁨, 멋진 인재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어른의 관심을 받는 기쁨 또한 교육에 있다고 본다.

나는 내아이가 그 기쁨을 느꼈으면 하고, 나의 학생들에게 그 기쁨을 되돌려 주고 싶다.

매달 설레는 마음으로 참학모임 <토닥토닥> 시간을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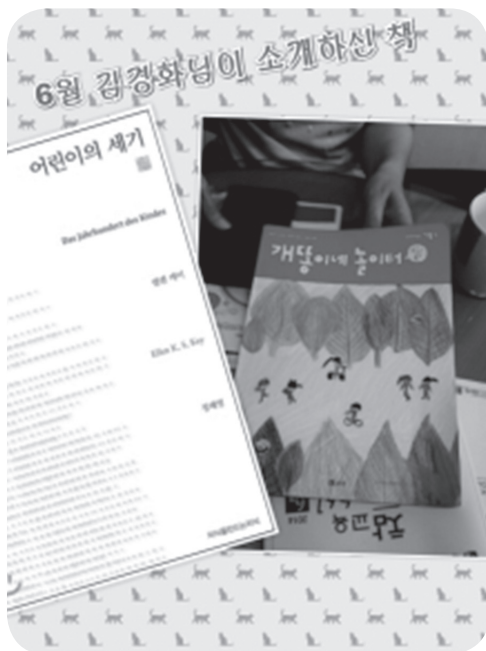
엄마로 돌아가고 교육의 기쁨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기에 감사하다.

나는 엄마다. 나는 아이가 만나는 최고의 교사이고 싶다.

대연동에서 7세 엄마 안병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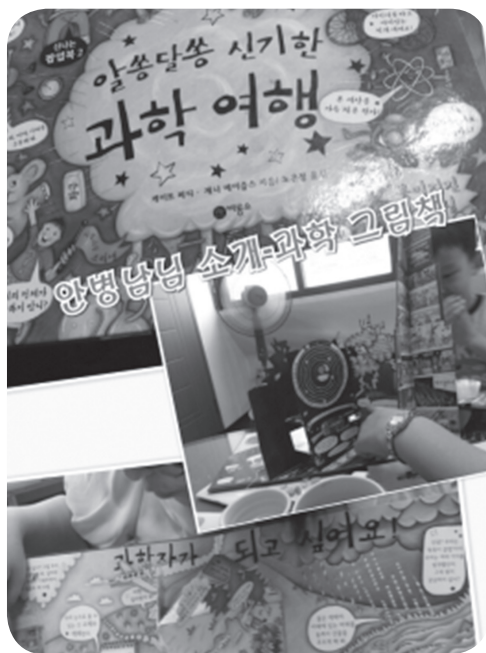
▲ 몸짓이 돋보인 “고양이”
(글:현덕, 그림:이형진/길벗 어린이)



▲ 월간 어린이 잡지 “개똥이네 놀이터”(보리)
일,자연,놀이가 하나되는 손그림이 정감있다는 반응



▲ 조효정 회원이 5세 아이와 나누고 있는
그림책 “지하철을 타고서”
(고대영 글, 김영진 그림/길벗 어린이)



▶ 안병남 회원이 보수동 중고서점에서 구입한
입체 그림책 - “알쏭달쏭 신기한 과학여행” (비룡소)



綠茶를 들며

이상범



초록의 곁에 앉아
연초록을 마십니다

초록을 푼 따끈한 물
몸에 실려 자연이고

온 몸을 물들이는
녹색의 밝은 향기

돌 개울 물 소리가
산수화를 그릴 즈음

먼 생각 지리산 닮은
물소리를 듣습니다

눈부신 초록을 마시며
맑은 숲을 펼칩니다

칠월은 짙은 초록의 계절,
하동에서 만든 햇 녹차를 마시며
그 초록의 푸르름에 물들어 봅니다.

이 시는 禪詩 같은 간결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과꽃

어효선 작사
권길상 작곡

풀잎 동요마을

과꽃

어효선 작사
권길상 작곡

1. 올 해도 과 - 꽃 이 피 - 었 습 니 다 -
2. 과 - 꽃 예쁜 꽃 을 들 - 여 다 보 면 -

꽃 발 가 득 예 -쁜 게 피 었 습 - 니 다 -
꽃 - 속 에 누 나 얼 굴 떠 오 름 - 니 다 -

누 - 나 는 과 - 꽃 을 좋 아 했 - 지 요 -
시 집 간 지 운 - 삼 년 소 식 이 - 없 는 -

꽃 이 피 면 꽃 발 에 서 아 주 살 - 았 조 -
누 - 나 가 가 을 이 면 더 - 생 각 나 요 -

이때쯤 화단에 많이 피어 있던 과꽃,
화려하지도 않고 소박하면서도 정감이 가는
과꽃을 저도 좋아했지요.





아동센터에서

“센터장님~”

아동센터 입구부터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있다.

어제는 매미를 잡아 통에 담아 왔더니 오늘은 무슨 일일까?

잠시 생각할 틈도 없이,

“저 상받았어요”

3년동안 처음 들어보는 반갑고 눈물 나도록 기쁜 소식이다.

“아이구 내 아들 맞네”

“함 보자, 이야 참말이네”

옆자리에 있던 생활복지사 선생님도 웃음이 얼굴 가득이다.

참말로 진보상을 받아온 우리센터 3학년 말썽쟁이 정현이다.

정현이는 1학년 때 처음 만났다.

할머니와 살고 있으며 30대 초반의 아버지는 몸이 건강하지도 않고 직장이 안정적이지도 않다.

50대 중반의 할머니가 막내 아들 키우듯 정현이를 키우셨다고 했다

가끔 전화 통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다보면 정현이 할머니는 사느게 힘들다며 정현이 키우는게 갈수록 더 힘들다 하신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들어주는 일 뿐이다.

정현이가 학교 마치고 센터에 오면 가슴이 어스러지게 안아주기를 한다.

부끄러워하며 좋아하지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는다.

볼 때마다 꼭 안아 주고 싶은 아이다.

저 조그마한 아이가 엄마가 없다는게 너무 너무 가슴 아프다.

센터에서 늘 여기저기를 쏘다니며 친구들이나 형들을 괴롭히다 혼이 나고 소란스러워지는 곳을 쳐다보면 정현이가 있다.



나는 그럴 때면 가끔 조용히 손을 잡고 우리 동네 마실을 간다.
 내가 잘 가는 미용실도 가고 시장도 가고 별 말도 없이 손만 꼭 잡고 둘이서 걷다보면 너무 귀엽고 순한 어린 아들이 되어있다.
 한 번은 진심으로 내 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 아들 할래?”
 “안돼요 저는요 아빠보다 할머니하고 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아들이라 안돼요”
 “그래 맞다 정현이는 할머니 아들이다”
 그 다음부터 마음이 좀 놓였다. 할머니가 엄마구나.
 정현이도 엄마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할머니 엄마도 괜찮다고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그래도 볼 때마다 말을 걸어본다
 목욕은 갔다왔나?
 아빠는 요즘 집에 자주 오시나?
 집에서 키우는 개는 잘 있나?
 우리센터에서 현석이는 내 아들로 통한다.
 다른 아이들이 샘을 내지도 않는다.
 내가 있는 날은 훨씬 안정적이라 아이들도 그걸 아는 거 같다.
 저녁 급식시간이 되면 밥 먹지 않는다고 떼를 부리다가 내가 옆에 앉아서 먹으면 조용해진다. 먹다 남은 반찬을 내가 먹기도 하며 챙겨주는 맛에 아무 소리 없이 저녁밥 한 그릇을 다 먹게 된다.
 지난 6월 어린이 대공원입구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수영 가방을 든 남자 아이 셋이 서명을 하러 왔는데 우리센터 정현이가 있었다.
 밖에서 만나니 더 반갑고 서명까지 하러 왔으니 역시 우리센터 정현이구나 하는 생각에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다.
 옆에 있던 참학 회원들까지 칭찬을 하니 정현이도 기분 좋아 보였다.
 나는 이렇게 정현이와 기분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4. 7. 15. 아동 이름은 가명입니다.)



7월부터 최은화 회원님의 ‘지역아동센터이야기’를 실습니다.
 올 상반기, 노인 센터이야기를 보내주시는 김진아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모두 모여서 강물이 되도록 울기로 해요
-전교조 법외 노조화 판결이 있는 날

노영민 (동래고 교사)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어찌 악의만 있겠어요?

다만 좀 긴장하라는 것

신발끈 조금 더 조여매라는 거겠지요

새 신발을 신었을 때의 약간의 불편함 각오하라는 거겠지요

그래요

긴장이란 새옷을 입었을 때 주위가 자꾸 둘러봐지는 것

헌팅캡을 중절모로 바꾸어 썬 날 아침의 설렘과 같은 것

그래 맞아요

긴장이란 사랑을 새로 시작했을 때의 아련함

오래된 아내가 새롭게 보이는 것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어찌 우리들 이어놓은 끈을 자르려는 것이겠어요?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리라는 것은 그들도 알잖아요?

다만 느슨해진 끈 좀 더 단단하게 당기라는 말이겠지요

헤진 것은 고치고 낡아 못쓰게 된 것은 바꾸라는 것이겠지요



그래도 아프긴 해요

고용부장관, 교육부장관도 우리가 가르쳤고

판사도 우리가 가르쳤고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 대통령도 우리가 가르쳤잖아요?

우리 잘못이 크지요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 사랑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는 말기로 해요

절대 포기하지 말기로 해요



다만 우리 지금까지 해온 것을 깊이깊이 돌아보기로 해요

그리하여 바꿀 게 있으면 확 바꾸기로 해요

사랑의 매라는 말, 진정 말이 되는 건지 다시 살펴보고요

보충수업, 야간 자율학습도 다시 따져 보고

교복도, 교문 지도도 더 꼼꼼히 챙겨봐야겠군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무엇보다 그 무엇보다

점수 경쟁, 입시 경쟁 교육을 본격적으로 되돌아봐야지요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어찌 나쁘기만 하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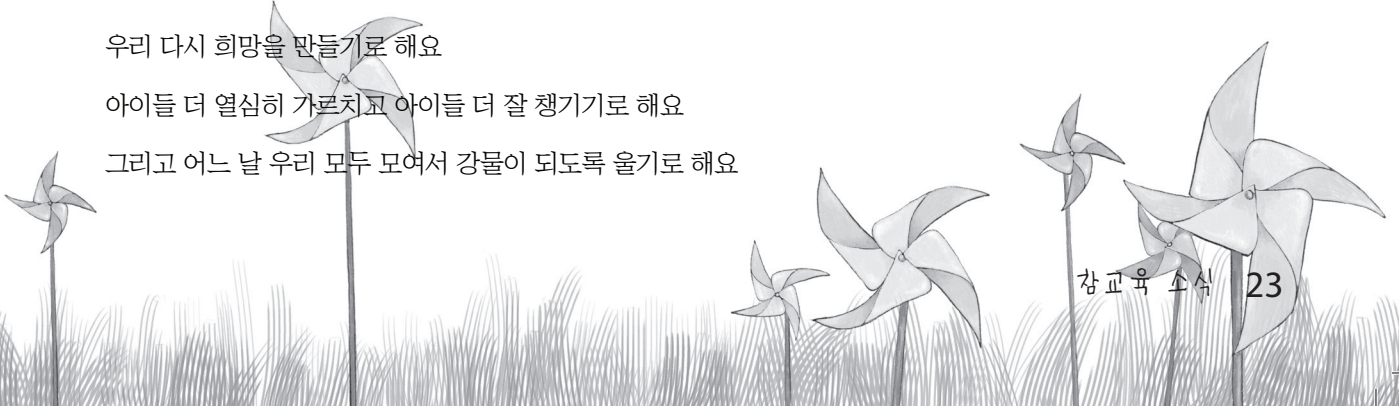
우리가 가르친 아이들이 한 짓인데 어찌 악한 의도만 있겠어요?

그래요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란데

우리 다시 희망을 만들기로 해요

아이들 더 열심히 가르치고 아이들 더 잘 챙기기로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모두 모여서 강물이 되도록 울기로 해요





신광호님의 영화읽기

차이와 타자성을 포용하는 소통의 텍스트 ; 다큐멘터리 <동과서> 영화 <살람 봄베이>

(대지진, 제8요일, 바그다드 카페, 아주르와 아스마르, 리스본행 야간열차)



1. 차이를 포용하는 것이 삶이고 사랑이다.

얼마 전에 국립 국어원이 표준 국어대사전에 수록한 '사랑'의 뜻풀이를 새로 수정했다.

국립 국어원 누리집에 수정된 사랑의 뜻은 다시 예전의 이성애 기준으로 되돌려졌다.

나는 이 행위의 의미를 위험한 퇴행이라고 본다. 퇴행이라고 한 것은 공동선의 기준에서 사람들 사이의 상호 교류와 소통을 협소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뒷걸음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위험하다고 한 것은 국사 교과서를 제국주의 논리를 긍정하는 맥락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과 같은 연장선상의 정치적인 공작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사랑은 여러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의 청춘남녀 희생적 사랑도 사랑이지만 중국 영화 <대지진>에서처럼 오갈 데 없는 어린아이를 오랜 세월동안 돌보는 것도 사랑이다. 우리 선조의 공동체를 지탱해 나가는 중심 정서는 존중과 신뢰, 배려가 주종을 이루었고 그걸 모두 '사랑'이라고 표현해 왔었는데 역으로 표준 국어대사전에는 다시 남녀만의 것으로 축소시켜 놓았다. 폭넓게 사랑을 권장하고 자발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분위기를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구조조정하듯이 손 발 머리 모두 잘라버리고 더욱 살벌한 악육강식의 사회, 비정한 사회의 몸통만 남겨 놓고 거기에 따르라고 하고 있다.

빔 벤더스가 감독한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의 다미엘 천사는 지상의 한 여인을 사랑해 불멸의 삶을 버리고 (날개를 떼어내고 인간이 되어) 지상의 짧은 삶을 선택하며 즐거워한다. 자코 반 다니엘 감독의 <제 8요일>에서는 엄마를 그리워하며 길을 헤매던 정신지체아 조지가 지상의 삶을 버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추락하는데 조지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즐거운 노래가 배경에 흐른다. (나는 이것이 천국으로 향한 비상으로 보여 진다.) 천상에서 지상으로 또 하나는 지상에서 천상으로 방향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는데, 공간을 바꾸면서 새롭게 정체성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위의 두 영화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로드무비는 길 위에서 타자성을 만나고 그 타자성과 함께 또 다른 외부로 나아가고 그 무한 과정이 소통과 사랑의 과정과 다르지 않다. 사랑은 정착하여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외부로 함께 나아가는 평행선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힘은 우주의 원래 동력의 본질이고 모든 존재를 존속시키는 힘이다. 그 힘으로 서로 살게 하고, 서로 변화시킴으로 삶이 이어진다. 그래서 존재를 명사형으로 파악하지 않고 동사형으로 파악해야 그 본질이 드러난다. 우주의 동력은 모든 존재를 서로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진선미 셋은 서로 분리할 수 없듯이 삶과 살림과 사랑은 하나의 과정이다.

2. <동과서> 다큐 2부작 ;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

1부; 서양인이 보는 세상은 각각의 개체가 모여 집합을 이루는 공간이고 동양인이 보는 세상은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장과 같은 공간이다.

서양인은 사물을 분리, 분석하여 공통된 규칙을 발견하려 한다. 동양인은 분리보다는 연결을, 독립 보다는 전체를 강조한다.

서양인은 각각의 개체를 가리키는 명사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동양인은 개체간의 상호작용을 가리키는 동사를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

2부; 서양인들의 일인칭 관찰자적 시점은 그들 사고방식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동양인들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강조한다. 투시법처럼 자신의 입장에서 대상을 보려 하기 보다는 스스로가 하나의 구슬이 된 것처럼 대상을 자기 안에 비취 담으려 한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인칭 시점을 가지고 사고하게 된다. 타인의 시점에서 생각하는데 익숙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내가 먼저 있고 그 주체가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통적 동양의 사유는 조금 다르다. 먼저 행동하고 그 행동의 결과로 스스로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나'라고 말할 수 있을만한 것이 형성된다. '나'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고착될 수 없는, 항상 변화와 형성중에 있는 '과정'이다. 유가에서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과정에 고정된 내가 따로 먼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생명은 존재하지 않으며 동적 진행과정이 자아를 형성하며 다시 그 자아가 동적 진행과정을 주도한다. 서로 닭과 달걀처럼 맞물린 과정이다. 원인이 결과가 되고 그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된다. 불가에서도 고정 불변의 자아를 부정하여, '무아'는 윤회의 업장에서 벗어나는데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된다.

행복의 기준도 동서양이 서로 다르게 인식한다. 동양인은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행복한 가운데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반면에 서양인들은 주변 사람들의 행복행은 자기 개인의 행복행과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걸 보여주는 실험.

선생님이 동물 한 마리를 그려보라고 하면 동양 아이들은 서양아이들처럼 달랑 그 동물만 그리지 않는다. 그 동물과 함께 배경을 그린다. 숲속인지 바닷가인지 동물원인지, 그렇게 해야 그 동물의 캐릭터가 살아나고 전달된다고 무의식중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호랑이 한 마리가 야생에 있는 놈과 동물원에 있는 놈과는 얼마나 다른가? 추상적인 호랑이를 그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아 있는 동물에 관심이 많다.

〈동과서〉 다큐에서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제 동양인의 전통적 사고방식에 변화가 오고 있다. 급격하게 강제 주입되다시피 진행된 서구 근대화로 인해 개인주의, 명사 중심의 사고, 물질적 소유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이 늘어나면서 그것이 집단 무의식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소통이 단절되고 공적 교류가 사라지면서 사적인 소공간에 갇혀 기계 부품처럼 생명력을 잃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꿈이다. 꿈에 대한 낙관적인 감수성이다. 꿈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억이다. 그것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걸 잃게 되면 정말 막장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삶을 지속시키며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감수성의 회복이다. 더 이상 폭력과 허무주의 패배와 절망의 이미지가 세상을 지배하게 방치해둘 수는 없다.

소통과 사랑의 감수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영상을 떠올려 보자. 의외로 그리 많지가 않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사랑의 가교 역할을 하는 〈바그다드 카페〉, 에밀 쿠프스트리치의 〈삶은 기적이다〉처럼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디오니소스처럼 현재의 삶에 충실한 사람, 프랑스 애니메이션 〈아주르와 아스마르〉 계급과 신분이 다르지만 함께 꿈을 성취하려는 사람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다수가 모두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삶을 빛내는 사람들이다.

3. 〈살람 봄베이〉

소외와 단절을 뛰어 넘고 소통과 사랑을 성취한다는 것이 현실에서 그리 쉽지가 않다. 그건 전쟁처럼 치열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다. 그러한 노력이 영상으로 교감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치열한 과정의 리얼리티이다.

인도 봄베이의 삶을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의 장점이 결합된 동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다큐멘터리로 출발한 인디아 출신의 여성 감독인 미라 네어는 이 첫 번째 장편 극영화로 88년 칸느 영화제 신인 감독상을 수상했다. 중반까지의 줄거리.

중반까지의 줄거리;

인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서커스 일을 돕고 있던 소년 크리슈나는 심부름하라고 주어진 돈으로 기차표를 사 봄베이로 도망을 간다. 그는 도둑질했다는 집에서의 누명을 벗기 위해 500루피를 모아야 한다. 그는 봄베이에 서 차배달을 하면서 거리의 소년들과 친해지고 창녀인 레카와 그녀의 딸 만주를 알게 된다. 그는 레카의 남편인 바바는 사람에게 고용되고, 마약을 팔지 않지만 우연히 알게 된 치리무의 꼬임으로 발을 들여놓는다. 그러던 중 창녀촌에 네팔에서 잡혀온 ‘꽃의 16세’가 들어오고 크리슈나는 그녀를 짝사랑한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500루피를 모아 고향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으나 뜻대로 되지 않고 치리무는 그의 돈을 훔쳐 약을 복용하다 죽는다. 하루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오던 중 만주와 함께 경찰에 잡히는데..

초창기 인도의 세계적인 명감독인 사티아지트 레이는 자연주의에 바탕을 둔 인본주의를 영상화했다. 미라 네어는 그 전통을 이어 받고 여기에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의 기법을 결합해 <살람 봄베이>라는 놀라운 걸작을 탄생시켰다.

네오 리얼리즘 ; 네오리얼리즘은 2차대전 말 이탈리아의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불안으로부터 생겨났다. 비토리오 데시카는 네오리얼리즘의 탄생에 대해 “전쟁 말기 체계화된 영화 산업의 부재와 재정적 곤란이 감독들로 하여금 허구와 고안된 주제에 의존하지 않고 일상의 현실을 묘사하는 영화를 만들도록 했다.” 고 말했다.

캐릭터를 자연스러운 배경 속에 배치하고 일상 생활 속의 스토리를 구축하려는 네오리얼리즘 감독들의 노력 때문에 그들의 영화는 ‘찾아낸 이야기’ 또는 인생 유전영화라고 불려졌다. 네오리얼리즘 영화는 서사적 사건과 액션의 흐름이 우발적이며 자연스럽다. 감독은 단지 한 캐릭터의 뒤를 따를 뿐이며 스토리를 만들어 냈다기보다 찾아냈다는 인상을 남긴다.

카메라가 연속극 드라마처럼 실내에서 맴돌 때 사적이고 은밀한 개별적인 사연들을 선정적으로 펼치기 용이하다. 카메라가 공공장소나 거리에 있어야 사람들 사이의 소통과 교류가 원활해진다. 길의 의미는 두 가지다. 객관적 현실의 공간.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공상은 길에서 거리에서 그 허구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일단은 현실의 길을 수궁하고 받아들인다. 또 한 가지는 공동선 지향의 공간. 공적인 공간에서 깨우침이 일어나고 자유 실천의 동력이 생긴다. 역사는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새롭게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길은 또 다른 ‘새 길’을 위하여 존재한다.

<살람 봄베이>는 길에서 만나는 여러 군상을 살피는 관조의 영화가 아니다. 그 카메라는 이미 양가주망(참여)이다. 동영상을 찍는 감독이 처음에는 관조하듯이 찍다가 어느 순간에 피사체의 집단의 인사이더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 여감독은 거기서 빠져 나오지 않고 진득하게 우산 없이 내리는 비를 함께 맞았다. 카메라는 흠이 묻고 상처가 많이 났을 것이다. 이 작품을 보노라면 허물없이 하나가 되어 뒹구는 열린 마음에 계속해서 놀라게 된다.

미라 네어의 이후의 행보는, 부르주아 가정의 시끌벅적한 결혼 준비 과정을 다룬 <문순 웨딩>,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그녀의 다음 선택은 19세기 영국의 상류사회를 그린 <베니티 페어>였다. 최근까지 여러 작품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티아지트 레이의 숭고한 맥락을 이은 작품은 아직까지는 <살람 봄베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한다.

4. 최근에 본 영화 <그레이트 뷰티> <리스본행 야간열차>

만약 펠리니 감독의 <8과 2분의 1>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재미있었다면 <그레이트 뷰티>를 즐겁게 볼 수 있다. 이태리 로마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찾는 여정이 (마치 파랑새를 찾으러 멀리까지 방향하는 동화처럼)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대장정의 로드무비이다. 나이트 수녀의 성스러움도 아름다움이고 첫사랑 여인의 싱싱한 육체도 모두 아름다움이건만 욕심 많은 최상층의 부르조아 주인공은 그 모두의 아름다움보다 더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평판 좋았던 수십년 전의 자기가 썼던 저서도 백안시하고 다시 책을 쓸 생각도 하지 않는다. 최고의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지상의 아름다움을 외면한다면 그 사람에게 진실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 희망도 없이 지독한 회의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소통과 사랑도 멀어진다. 사랑을 소유하거나 소비하려고 하면 딱 저렇게 되니까 참고로 한 번 보십시오 권할 수는 있겠다. 짝막한 시퀀스들의 경계가 강렬하게 날선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선과 악 성과 속의 주제로 씨줄 날줄 교차편집으로 현란하고 정신없이 전개된다. 때로는 자극적이고 때로는 멋진 미장센에 눈을 떠기가 어려운데 그중에서도 로마의 춤 살롱에서 벌어지는 남녀 단체 군무는 두고두고 잊기 어려운 인상적인 장면이다.

<리스본행 야간열차>는 제레미 아이언스의 매력이 절절하게 묻어나오는 역작이다.

감독은 <정복자 펠레>를 연출했던 '빌레 아우구스트'

우연히 책 한권에 매료되어 예기치 않은 기차에 몸을 싣는 노년의 교수 그레고리우스는 평생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레고리우스가 폭 빠진 그 책의 저자 아마데우스는 1974년 포르투갈 카네이션 혁명에 참여한 지하운동 단체의 단원이었고, 이 영화는 그레고리우스가 그 혁명단체에 가담했던 인물들을 한명씩 추적하면서 그 인물들의 갈등과 그 갈등의 해소를 향한다.

명대사 몇 개만 추려본다.

1. 독재가 현실이라면 혁명은 의무이다. (아마데우스의 묘비명)
2. 삶의 진정한 감독관은 사건이다.
3. 시간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살아 있게 된다.

전체적으로 노스탤지어를 자극하는 감상적인 분위기이다.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설레임을 줄 수 있겠다. 아쉬운 점은 포르투갈 혁명이 전시용 액자에 갇혀, 참여한 인원들의 진정성이나 열기가 드러나지 않는다. <리스본행 야간열차>는 외부에 대한 호기심과 책속에 등장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 타자성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지는 못하고 관조적 차원에서 스치기만 한다. 그래도 관객의 입장에서 그런 관심과 호기심이 일단 중요하다. 그런 상황을 대리 체험 해본다는 것이 지금과 같은 단절의 시대에 의미가 적지 않다..

당장 타자성과 차이를 포용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여러 영화들이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신 광 호 올림

문체부의 학교 앞 50미터 호텔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참교육 학부모회 부산지부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앞 200m 이내, 유해시설 없는 100실 이상 객실 규모의 관광호텔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유해시설 설치 적발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나, 이미 지어지면 관광사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학교 앞 호텔 건립을 막고 있는 학교보건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관광단지 조성은 삼가도록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이미 올 4월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돈벌이 보다 안전’이었습니다. 호텔 자체가 위해 시설이 아니라고 하나, 50미터 앞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면 관광차로 인한 등푼길 위험과 유흥시설의 통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학교보건법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 유해업소가 4만 여개 달하고 신 변종업소만도 171개에 달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정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정화위원회의 관광숙박업 금지 해체율이 적극적으로 60%에 이르고 있어, 교육계와 지역주민들은 학교환경정화구역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강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 관광진흥을 이유로, 학생들의 비교육적 환경을 감수하라니요?

서울의 경우, 경복궁 인근 특급호텔 건립에 반대하여 풍문여고 학부모의 반발로 서울중부교육청이 건립을 불허하여 원칙이 지켜졌습니다.

현재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해강초등학교 직선70m 상대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은 지역주민과 학부모, 시민단체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는 경제논리에 밀려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반대하며,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의 국민의 안전과 휴식이 보장된 삶의 질의 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4년 7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

법외노조 판결, 전교조의 탄압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린 시대착오적 행태다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오늘 판결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해직자 조합원 자격유지 조항 시행을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판결이다. 그 당시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 결과 68.59%가 거부함에 따라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해직자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합법적 지위의 조합원으로 활동해 온 조직으로 이번 판결은 매우 정치적 판단이다. 또한 규약 시정을 근거로 6만여 조합원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이번 판결은 매우 유감이다.

이번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분노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주입식 교육의 변화를 열망하며 나타난 6.4지방 선거의 교육감 선거 결과를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 수많은 조합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혼란을 가져 올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때 우리 학부모들은 이것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는 초심을 떠 올리며 교육현장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이에 교육운동 세력들은 함께 할 것이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힘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참교육과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실천하는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에서 만나 함께 할 것이다.

정부는 전교조를 교육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파트너십을 스스로 포기하는 불행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전교조 및 교육운동의 탄압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향후 최종판결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2014년 6월 19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부모알림란

◆ 열세 번째 달밤 트레킹

가족과 함께 부산의 절경을 밤새 걸어보는 행사입니다.

40분 걷고 10분 쉬며 자연과 함께 사색하고 해안을 따라 걸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안내자 : 권용욱 선생님



- 언제 : 2014. 7. 26 (토) 오후 5시 ~ 27일 (일) (05:00)
- 어디로(총22km) :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용호동) 집결 ~ (4km) ~ 이기대해안산책로 ~ (0.5km) ~ 쇠자리 ~ (4km) ~ 광안리해수욕장 ~ (2.5km) ~ 수영2호교 ~ (2km) ~ 동백섬 ~ (2km) ~ 해운대해수욕장 ~ (4km) ~ 청사포 ~ (3km) ~ 송정해수욕장 해단식
- 교통 BUS : 오륙도 sk뷰 아파트 후문 하차 ▶100미터 앞 해파랑길 관광 안내소 (경성대 부경대 방면 27번, 131번, 마을버스 남구 2-1)



※ 청소년 자녀와 함께, 혹은 부부회원, 개인회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보내실 곳 : 이메일 ▶ hakbumo1@empas.com
F A X ▶ (051) 556-1790
- 문의 : 참교육학부모회 T. (051) 556-1799 / 상근자 조효정 T. 010-3563-3142

◆ 그림책 소모임 “토닥토닥”

- 일시 : 7월 28일 (월) 저녁 6시
- 장소 : 참학 사무실
- 문의 : 참교육학부모회 T. (051) 556-1799 / 상근자 조효정 T. 010-3563-3142
- 프로그램 : 1. 아이와 함께 읽는 그림책 소개 / 2. 교육책 소개
3. 교육감 공약과 정책 공부 (혁신학교 이야기)

※ 아이와 함께 오셔서 밥 같이 먹어요~



이달의 지역 언론 속의 교육 기사

교육감직인수위 12명 선임 / 위원장에 노민구 신도고 교장 / 지역교육계 추천 중립 성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인의 향후 4년간 공약이행 방안과 실천과제를 제시할 ‘부산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김 당선인은 11일 오전 9시 30분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시교육연구정보원 5층 당선인실에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총 12명의 명단과 인수위 활동 방향을 밝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교육개혁분과, 투명재정분과, 시민참여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인수위의 위원장에는 노민구(59·사진) 신도고 교장(전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선임됐다. 노 위원장은 경북대 사대 출신으로 지역 교육계의 신망이 두텁고, 교육 현장 및 행정 경험도 풍부한 전문가로 꼽힌다. 김 당선인과는 개별적인 친분은 없는 중립 성향으로 지역 교육계 추천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위원장에는 성병창 부산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학교 경영과 교육 행정이 전공인 성 교수는 김 당선인의 교육개혁 공약을 실행할 밑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개혁분과 위원에는 김은주 부산대 교수(유아교육과)와 박재한 주양초등 교사, 홍동희 부곡여중 교사, 강용근 부산 남고 교사, 백성언 동아고 교사, 장경국 부산교육포럼 사무국장 등 6명이 선임됐다. 시민정책 요구안을 수렴할 시민참여분과에는 김정숙 부산식생활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와 유영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추천됐다. 교육청의 예산재정 현황과 올 하반기 예산 운용방안을 검토할 투명재정분과에는 현정길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과 박선계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위원으로 추천됐다.

인수위에는 전교조와 부산교총 추천 교사가 각각 3명과 1명이 포함됐다. 전교조와 부산교총은 인수위 구성에 대해 비교적 무난한 평가를 하면서도 교육현장의 전문가가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인은 “선거에서 확인된 바 있는 시민들의 부산교육 개혁 열망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당선인은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부산대 1사범관 306호 강의실에서 마지막 수업을 진행했다. 일반사회교육과 1학년 학생 등 80명이 수강한 사회학 강의에서 김 당선인은 ‘세계화’를 주제로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용기와 열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만31년간 교수로서 마지막 학부강의를 마쳤다.

지난 1983년 만 26세의 나이로 부산대 교수로 임용된 김 당선인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오는 30일 교수직을 사직하게 된다.

부산일보 / 광명섭 · 최혜규 기자 kms01@busan.com/2014-06-11

마을과 학교 소통하는 곳에 '혁신학교'의 미래가 있다.

산성마을 금성초등에 가보니

문제 댄 학교 · 마을 함께 의논, 학교는 경쟁터 아닌 즐거운 곳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 인기, 전교생 46명에서 121명으로

시전교생이 121명인데, 하루에 두세 건씩 전학 문의가 온다. 도심 30평대 아파트를 팔아야 산골 20평대 빌라를 겨우 얻을 만큼 집값도 뛰었다. 어르신만 있던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지난해 구민체육대회에서는 금성동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단체 줄넘기 선수단을 구성해 39회라는 기록도 세웠다. 이게 다 부산 금정구 금성동, 산성마을의 공립학교 금성초등학교 때문이다.

산길을 달려 도착한 금성초등학교는 여름 계절학교와 캠프 준비로 분주했다. 작은 학교 운동회와 문화예술교육으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은 이 학교를 다시 한 번 찾은 것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혁신학교 공약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임기 내 30곳의 부산형 혁신학교 설립을 약속하면서 이곳을 모델로 언급했다. 이 작은 학교에서 혁신학교의 미래를 만날 수 있을까?

■ 학교 때문에 이사 오는 이유

지난달 26일, 학교 건물 입구에서 새집 만들기에 열중한 학생들이 먼저 눈에 띄었다. 교실 교실마다에는 학년도 숫자도 제각기 다른 아이들이 뜨개질, 요리, 그림자극, 찰흙, 인형 만들기, 가면 만들기, 고무 동력배 만들기를 하느라 코를 박고 있다. 하나같이 열중해 있거나 웃고 있는 표정이 인상적이다. 인원 제한 없이 각자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해 참가하는 체험 중심 교육 과정 '손끝 체험' 시간이다.

금성초등은 전교생 121명 중 학교 때문에 온 가족이 이사를 온 학생이 3분의 2가 넘는다. 학생 수가 넘치는 바람에 2009년부터는 금성동 산성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학생만 전학을 허가하고 있어서다. 2004년 학생 수가 46명까지 떨어져 폐교 예정 학교였던 이 학교를 지금 모습으로 바꾼 가장 큰 힘은 무엇보다도 배움을 즐겁게 느끼게 하는 수업, 구체적으로는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이었다.

“예를 들어 교과 중심 수업은 같은 환경 주제 단위이라도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과목으로 단절된다면,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은 여러 교과의 환경 주제 단원을 재구성한 뒤 체험 위주로 진행합니다. 일주일 동안 환경을 주제로 글을 써 보고 실험을 해보고 만들기를 해 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데 열을 올립니다. 삶의 공부라 되는 거죠.” 박선주 교육과정 부장의 설명이다.

1, 2학년은 숲 체험, 3, 4학년은 연극, 5, 6학년은 생태 미술과 영화 만들기를 테마로 주 2시간씩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계절학교와 동아리 활동으로 목공, 음악, 요리, 미술 등 문화예술교육도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제 몫을 해야 영화 한 편, 연주 한 곡을 완성해낼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소통하고 협

력하는 법을 배운다.

김외숙 교장은 “이와 같은 교육이 오히려 학력, 즉 공부하는 힘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2학년 때 이 학교로 전학 와 6학년이 된 자녀를 둔 신용규(40) 씨는 “보통 학교에서는 한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쉬쉬하지만, 이 학교에서는 학교와 마을이 다 같이 의논해서 대책을 세운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통해 아이가 매사에 적극적이고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 중요한 건 원칙과 문화

박선주 부장은 “모든 혁신학교가 금성초등처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정산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학교라서 가능한 교육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억해야 할 기준은 지역에서 답을 구해야 한다는 것. 학교마다 학부모의 수요를 파악해 그 지역에 맞는 혁신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 평소에 여행 기회가 적은 금성초등 아이들과 학원 다니느라 바쁜 도심 학교 아이들의 방학 프로그램은 다를 수밖에 없다.

정답은 없지만 원칙은 있다. 첫째는 학교가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즐거운 곳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성초등에는 상장이 없다. 아이들은 “우리 학교는 시험이 없다”고 말한다. “물론 시험을 치지만, 시험이라고 느끼지 않고 모르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친구들과끼리 의논해서 같이 답을 찾거나, 나머지 공부를 시켜 달라고 조르기도 합니다.”

학생 중심, 교사 중심의 민주적인 소통 구조 또한 혁신학교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3~6학년이 학년을 섞어서 8명씩 팀을 이루는 두레는 이를 위한 학내 기구다. 6학년 학생은 모두가 두레장 또는 부두레장이 돼 정기, 비정기 ‘다모임’ 토론을 이끈다. 6학년이 3학년에게 욕설을 한 일, 5, 6학년이 수학여행을 같이 가는 일이 다모임의 주제가 된다. 현장 학습, 체험활동도 두레 단위로 이루어진다.

교사협의회도 마찬가지다. 캠프 둘째 날 월드컵 한국-벨기에전 단체 응원 장소도 운동장, 강당을 두고 교사협의회를 소집해 결정했다. 김외숙 교장은 “교장, 교감도 12명 교사협의회 중 한 명일 뿐이다. 교사협의회에서 결정되면 교장은 사인만 한다. 학생과 교사,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심이다”라고 말한다. 열정적인 교사의 역할과 더불어 민주적인 소통을 이끌 관리자의 역할 또한 중요한 이유다.

교사에 의존하는 혁신학교의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혁신학교를 떠난 뒤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김외숙 교장은 “문화”를 이야기했다. “금성초등을 졸업한 아이들은 중학교에 가도 내신에 안 들어가는 토론 수업에 더 열심이라고들 합니다. 이주한 젊은 사람들을 마뜩잖아 하던 어르신들도 이제 학교 운동회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금성초등의 ‘문화’가 교사를 넘어 마을로 정착하고 있는 거지요.”

박 부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졸업한 아이들과 2년째 ‘A/S(애프터서비스) 여행’을 갔더니 함께 갔던 아빠들이 A/S 센터 여행 모임을 만들었어요. 학부모, 마을이 함께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될까?” 불안할 때 교사는 불씨를 댕겨주면 됩니다. 그렇게 변화를 겪고 나면 또 다른 교사나 학부모가 문화를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부산일보 / 김현아 기자 srdfish@busan / 2014-05-20

책상머리 학교 안전교육, 체험형으로 바뀌라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의식 높아졌지만 체험교육시설 거의 없어 대부분 강의식으로 진행 일선 교사들 “효과 의문

■ 사례 1=부산 모 고등학교는 올 들어 재난교육을 2회 실시하면서 주로 강의식으로 진행했다.

안전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들이 체험형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 또 강의하면서 화재 때 완강기를 사용하라고 강조했지만, 실제 완강기를 타지는 않았다”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교내 완강기를 타다가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산에 체험교육 시설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 사례 2=또 다른 고교의 안전교육 담당 교사 A(44) 씨는 학기 초 교육시간을 배정하느라 골머리를 앓았다. 법적으로 최소 44시간 이상 재난교육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시간 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A교사는 “일부 교과목을 선정해 교사들에게 수업과 연계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수업시간에 안전교육이 이뤄졌는지 검증할 방법은 없다. 의무 교육시간이 너무 많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각급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는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과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안전교육 대부분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구난방 식 지침을 개정해 현실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학교 안전교육을 규정하는 법령은 아동복지법, 학교보건법, 학교안전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등 3가지이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받아야 하는 최소 안전교육 시간은 44시간으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8시간), 실종·유괴 방지(10시간), 약물 오남용(10시간), 재난대비(6시간), 교통안전(10시간)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사들은 이 같은 규정이 안전교육의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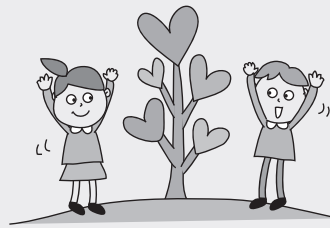
연령과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없어 수업 대부분이 강의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별도의 안전교과목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높다.

부산의 한 지구과학 교사는 “수업시간에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올바른 화재 대처법을 강의했으나 ‘~를 해야 한다’는 식의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졌다”면서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학습지도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여러 법령에서 안전교육을 규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면서 “예고 없이 학교 비상벨을 울려 대피현황을 점검하는 등 현실성을 높인 안전프로그램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송지연 기자 sjy@busan.com/2014-06-17

활동 사진



▶ 6.7 우다소사-청소년 자원봉사 사전학습
(우암동 자유아파트 상가/ 편국자, 자유성, 정찬호,
최은화, 최진경, 조효정 참여)



▶ 6.7 세월호 참사 애도 촛불집회
(부산역 광장/이규남, 편국자, 노영민, 백미영, 최진경, 김소영, 이인경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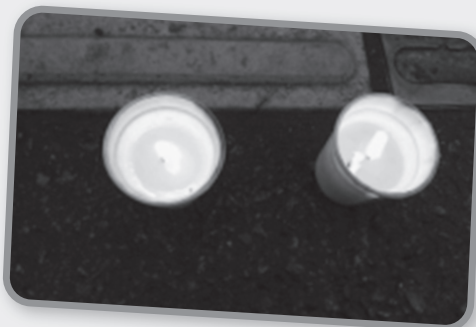


▶ 6.14 우다소사 경주 버드파크 -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습
(장유성, 편국자, 최은화, 이창호, 박향순, 조효정 참여)

활동 사진



▶ 6.21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한 서명운동
(서면 1호선 환승역 / 편국자, 최진경, 안소영 참여)



6.21 세월호 유가족께 드리는 연대사 낭송
(부산역 광장/ 최진경, 편국자)



▶ 6.28 영화 소모임
(신광호, 조정화님 님 / 박선희, 윤영근, 김정숙,
김정만, 채승영, 권용욱, 백미영님 참여)



6월 이렇듯 보냈어요

6월 7일 우다소사 -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 사전학습

(우암동 자유아파트상가 / 편국자, 장유성, 정찬호, 최은화, 최진경, 조효정 참여)

세월호 애도 촛불집회

(부산역 광장/ 이규남, 편국자, 최진경, 노영민, 김소영, 이인경, 백미영 참여)

6월 12일 3차 이사회 (전교조 대전지부 회의실 / 편국자 지부장 참여)

교육감 운동본부 평가 (서면 노무현재단 / 최은화 참여)

6월 14일 우다소사 -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습

(경주 동궁원 / 편국자, 장유성, 최은화, 이창호, 박향순, 조효정 참여)

6월 16일 임원회의 (부산역 분향소 / 편국자, 장유성, 최은화, 김진아, 최진경, 조효정 참여)

6월 17일 부산역 분향소 지키기 (정찬호 참여)

6월 21일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한 서명운동 (서면1호선 환승역/ 편국자, 최진경, 김소영)

유가족에게 드리는 촛불 연대사 (부산역 광장/ 최진경, 편국자 참여)

6월 24일 김석준 교육감 간담회 (학생교육연구정보원/ 편국자 지부장 참여)

6월 28일 학부모 원탁토크쇼 “김석준 교육감 당선자와 톡톡”

(벡스코 컨벤션/ 김정숙, 김경화, 남희선, 이인경, 장유성, 최은화, 편국자 참여)

영화 소모임

(신광호, 조정화 회원님댁 / 김정만, 김정숙, 윤영근, 박선희, 권용욱, 채승영, 백미영님 참여)

6월 30일 그림책 소모임 “토닥토닥” (참학 사무실 / 김경화, 김소영, 안병남, 최진경, 조효정 참여)

6월 회비를 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순금(2만), 강아련, 강재성, 강정아, 강정화, 고내현, 고창민, 고혜경, 공외정, 곽선희, 곽차섭, 곽태희, 권서용, 권영순, 권인근, 김경선, 김경준, 김경화, 김경희, 김기영, 김동철, 김동희, 김무진, 김미경, 김법기, 김상현(3개월), 김석준, 김성미, 김성희, 김소영(3개월), 김수영, 김수진, 김영미(A,5천), 김영미(B), 김영훈(2만), 김영희(A), 김영희(B), 김옥순(2만), 김원재, 김익수, 김재홍, 김정숙, 김정애, 김정열(5천), 김정원, 김종만, 김지원, 김진아(2만) 김채안, 김춘미, 김평심, 김현봉, 김현준, 김혜례, 김호정, 남광우, 남희선, 노귀전, 노기섭, 노영민, 노혜영, 노희정, 류봉심, 류정애, 맹일영, 문명숙, 문인숙, 문재경(5천), 문혜정, 민문식, 박경아, 박덕수, 박무준, 박성미, 박유미, 박향순, 배문주, 배종만, 백미영(5천), 백성희, 백점단, 부지환, 서경애, 서권석, 서인석, 서정호(A), 서정호(B), 석은경, 선석열(2만), 성인심, 손건태, 손재광, 송경희, 송명희, 송미경, 송미순, 송부희, 송승희, 신광호, 신수자, 신영희, 신용규, 신지원, 심미숙, 심성보, 안병남, 양윤자, 여진호, 오봉숙, 왕병구(2만), 우성만, 유동철, 유명희(3개월), 유은정, 윤내경(2만), 윤송태, 윤신옥, 윤연섭, 윤영근, 윤영이, 이경애, 이금숙(5천), 이내훈, 이병숙, 이선애, 이성하, 이수진, 이승중, 이영주(2만), 이은정, 이인경, 이일권, 이재홍, 이재희(5천), 이정인, 이종명, 이진희, 이창호, 이행봉, 이혜숙, 이혜영(2개월), 이희주, 임선희, 임영선, 장동제, 장말선, 장미자(5천), 장선희(2만), 장순옥, 장정인(3개월), 장현숙, 전순실, 정동주, 정동희, 정수련, 정승호, 정영배, 정윤숙, 정재천, 정찬효, 제진희, 조명숙(3만), 조병준, 조석현, 조원규, 조정화, 조효정, 주우명, 주정현, 지영경(5천), 채승영(2만), 최경희(A), 최경희(B), 최미경, 최은화, 최점순, 최정홍, 최종수, 최지선(2만), 최한, 편국자(2만), 편유화, 하경옥, 함정화, 허운영(3개월), 홍동희, 황마리아, 황선애

■ 6월 결산 보고

수입	지출내역	지출금액	이월금
이월금 2,010,077	중앙 분담금	505,780	1,798,957
회비수입 2,090,000	사무실 운영비	143,330	
후원금 60,000	소식지 발송비	105,010	
	소식지 인쇄비	372,000	
	사무실 임대료	275,000	
이자수입 3,953	지부장님 활동비	200,000	
선지급 차액 40,000	상근자 급여	800,000	
수입 합계 4,200,077	지출 합계	2,401,120	

- CMS 회원 신청하세요! 사무실에 나오셔서 간단한 양식을 채워주시거나 전화(☎051-556-1799)로 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계좌번호: 101-2001-6612-01 부산은행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 잔고부족으로 통장에서 미인출된 회비는 다음달에 2회 인출됨을 알려드립니다. 미인출 회비 최대 3개월치 인출됩니다.
- 후원금 6만원은 최은화 총무부장님의 우다소사 체험보조강사비로 참학에 전액 후원하셨습니다.
- 선지급 차액은 우다소사 행사로 인쇄실의 지급 차액입니다.

바로서는 학부모
우뚝서는 아이들

참 교 육 을 위 한 전 국 학 부 모 회

주요사업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대응 활동

교육정책에 학부모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 ◆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서, 성명서 발표, 서명·청원운동
- ◆ 교육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사회여론 조성
- ◆ 학교내 돈봉투 없애기 운동
- ◆ 국회·시·도 교육위원회 참관
- ◆ 학교의 부당찬조금 및 잡부금 없애기 운동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학부모 학교참여 운동

- ◆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강좌
- ◆ 학교운영위원회 문의상담
- ◆ 학교운영위원회 실태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

교육강좌·소모임 활동

전국 각지부별 월례 교육강좌를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 ◆ 교육현실의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강좌
- ◆ 소모임활동 : 그림책 모임, 영화 소모임, 텃밭 모임
- ◆ 부모역할 훈련
- ◆ 예비학부모 교실(초·중등)
- ◆ 지부별 월례교육 강좌

출판·홍보활동

학부모의 활동과 목소리 담는 ‘학부모신문’발간

- ◆ 매월 학부모 신문 및 지부 소식지 발간
- ◆ 신입회원, 임원교육자료집 발간

회원이 되려면...

우리 아이들이 올곧게 참되게 자라기를 바라는 학부모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비는 월 1만원이상 내시면 됩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어느 단체의 재정지원 받을 없이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수익사업만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참교육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합시다

주소 : 부산진구 중앙대로 918-1
(양정1동 352-2 3층)

문의 : 051)556-1799

<http://hakbumo.or.kr>